

'사사성장(寺寺星張) 탑탑안행(塔塔雁行)
절이 하늘의 별처럼 늘어서 있고 탑은 기러기처럼 줄지어 있다.'

신라의 화려함과 번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삼국유사의 한 구절입니다.
992년(BC 57 ~ AD 935)간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는 불교, 과학, 예술, 화랑
정신이 어우러진 고대왕국의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문화 속에서 꽂힌 조선 유학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적지, 신라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관광지,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산, 들, 바다는 또 다른 경주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풍부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경주컨벤션뷰로는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참가자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광을 위해 시간대별,
주제별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ICE참가자 관광프로그램 문의
경주컨벤션뷰로 주연우 주임
- 전 화 : 054-702-1012
- 이메일 : ywwoo@crowncity.kr

구역별 경주소개

경주는 시내권, 보문관광단지권(이하 보문권), 불국사권, 남산권,
동해권, 서악권, 북부권, 총 7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역이 지닌 뚜렷한 특징과 매력을 활용하여 주제별 또는 목적별로
다채로운 컨벤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내권

고대 왕국의 역사와 현대의 삶이 공존하는 시내권은 곳곳에
궁궐, 고분군, 절터, 사찰이 있으며,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석탈해, 김일지에 얹힌 신화와 설화를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라 천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심지이자 출발점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횡룡사지구가 있는 구역입니다.

주요관광지

국립경주박물관(성덕대왕신종), 계림, 낭산, 동궁과 월지(구. 안암지),
대릉원(천마총), 분황사, 월성, 오릉, 첨성대, 틸해왕릉, 횡룡사지

서악권

삼국통일의 근간인 화랑정신이 물어나는 구역으로, 5~6세기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나라 안팎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 신라 23대 법흥왕부터 29대 무열왕에
이르는 삼국 통일의 기틀을 이루는 주역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주요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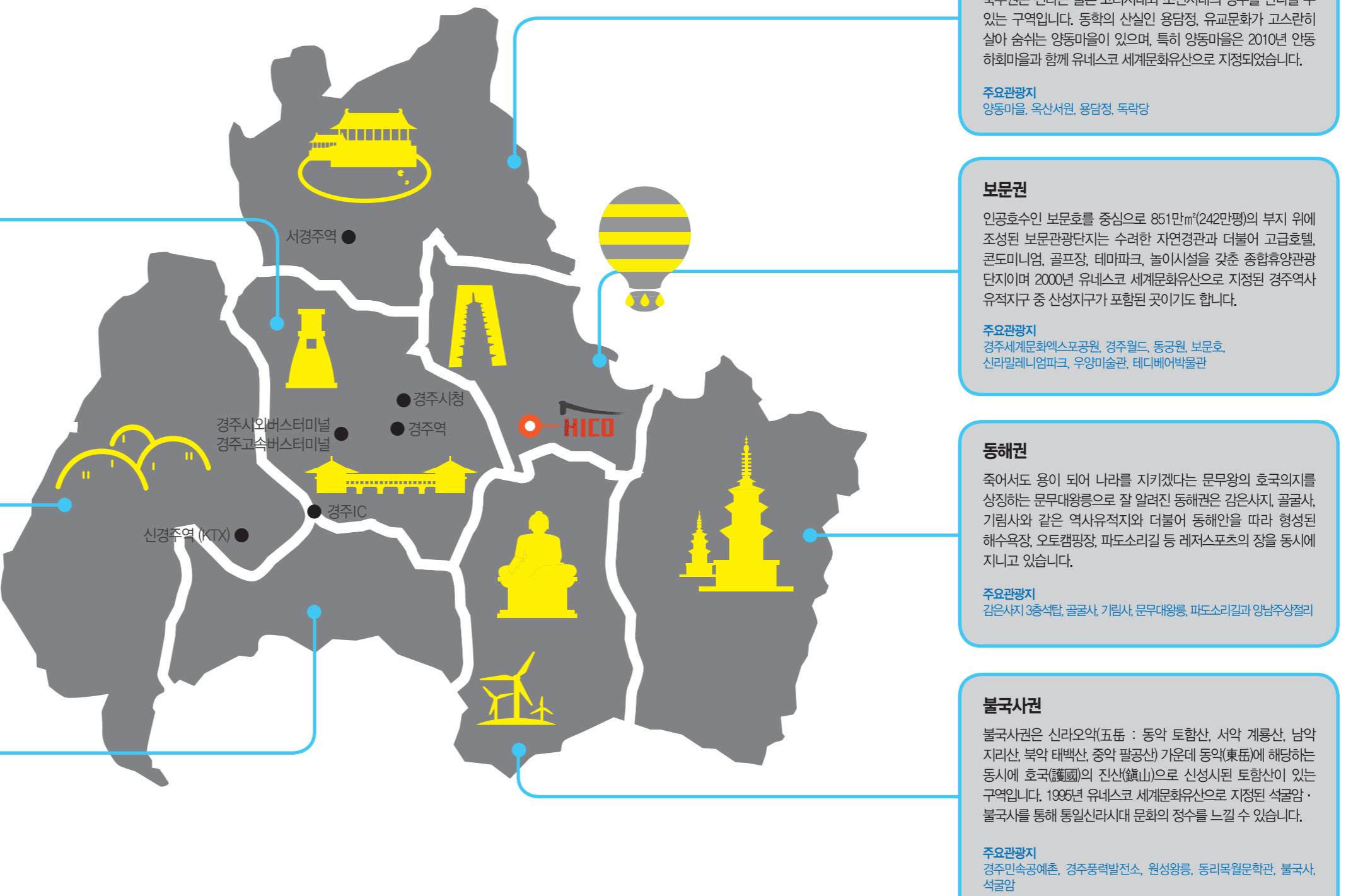
김유신장군묘, 단석산, 무열왕릉, 박목월생가, 서악동고분군

남산권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탄생한 나정(蘿井)에서부터 신라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포석정지에 이르기까지 남산에는 신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고스린히 담겨 있습니다. 150여 곳의 절터,
120여 구의 석불, 96여 기의 석탑이 있는 남산은 신라문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역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역사유적지구 중의 하나(남산지구)입니다.

주요관광지

남산, 나정, 삼릉골, 서출지, 용장골, 포석정지



북부권

불교와 천도교의 성지이자 유교문화의 전통까지 염볼 수 있는
북부권은 신라는 물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경주를 만나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동학의 산실인 용담정,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양동마을이 있으며, 특히 양동마을은 2010년 인동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관광지

양동마을, 옥산서원, 용담정, 독락당

보문권

인공호수인 보문호를 중심으로 851만m³(242만평)의 부지 위에
조성된 보문관광단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고급호텔,
콘도미니엄, 골프장, 테마파크, 놀이시설을 갖춘 종합휴양관광
단지이며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역사
유적지구 중 산성지구가 포함된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관광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경주월드, 동궁원, 보문호,
신라밀네나무파크, 우양미술관, 테디베어박물관

동해권

죽어에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호국의지를
상징하는 문무대왕릉으로 잘 알려진 동해권은 감은사지, 골굴사,
기림사와 같은 역사유적지와 더불어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파도소리길 등 레저스포츠의 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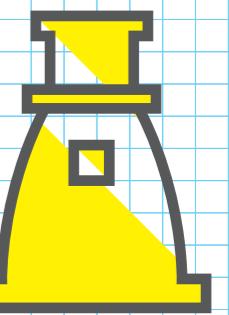
감은사지 3층석탑, 골굴사, 기림사, 문무대왕릉, 파도소리길과 양남주상절리

불국사권

불국사권은 신라오악(五岳 : 동악 토향산, 서악 계룡산, 남악
지리산; 북악 태백산, 중악 팔공산) 가운데 동악(東岳)에 해당하는
동시에 호국(護國)의 전신(鎮山)으로 신성시된 토향산이 있는
구역입니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 ·
불국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관광지

경주민속공예촌, 경주풍력발전소, 원성왕릉, 동리목월문화관, 불국사,
석굴암



경주MICE 참가자를 위한 추천 관광프로그램

2시간 투어 | 보문권

신라밀레니엄파크 경주월드 동궁원&버드파크 워터파크



신라밀레니엄파크

신라의 문화·역사적 요소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신라'를 주제로 삼아 기획, 건립된 놀이공원. 이 곳은 신라시대 기록을 재현한 민속촌 '천년고도', 우리나라 최초 '한옥호텔' '리궁', 그리고 MBC드라마 '선덕여왕'의 촬영세트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신라 대표 유물과 문화재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조형물과 전통문화체험장이 파크 곳곳에 있어 교육과 놀이가 한 곳에서 가능한 에듀테인먼트형 테마파크라 할 수 있다.

하이코 기준 : 0.9km, 차량이동 2분

경주월드

경주월드는 경주월드 어뮤즈먼트와 캘리포니아비치로 구성된 종합휴양놀이시설이다. 경주월드 어뮤즈먼트에는 28개 종류의 최신놀이기구, 공연장, 눈썰매장, 천연진수구장 등이 있으며, 캘리포니아비치는 미국적인 배경의 수영장과 인공파도시스템을 보유한 대규모 워터파크이다.

하이코 기준 : 0.5km, 차량이동 1분

동궁원&버드파크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식물원과 버드파크, 암입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동궁과 월지는 신라시대 궁궐의 정원과 연못으로서 삼국사기 기록 중 "문무왕 14년 2월 궁 안에 물을 파고 산을 만들며 화초를 심고 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궁원은 한옥 형태를 본 딸은 건물로, 400종 5,500본의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한편 버드파크는 새동지를 형성화한 유선형의 건물 내에 250종 900수의 조류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코 기준 : 5km, 차량이동 10분

워터파크

보문관광단지는 4개의 워터파크(대명리조트경주 아쿠아월드, 블루원 워터파크, 캘리포니아비치, 한화리조트경주 스포링동)가 있다. 이 중 캘리포니아비치는 여름철(6~9월)에만 개장하며, 나머지 3곳은 연중 운영된다.

하이코 기준 : 각 5km 이내, 차량이동 5분 이내

4시간 코스 | 시내권

교촌마을 계림 첨성대 대릉원



교촌마을

지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경주교촌마을은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이었던 향교가 있는 곳으로, 125년에 걸쳐 400년(1568~1970)동안 한국식 노불스러운 오벌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의 거주지로 유명해졌다. 현재 이 곳에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체험장이 있으며, 향교에서는 전통혼례제와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계림 (鶴林, 사적 제19호)

울창한 느티나무와 활엽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계림(鶴林)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일지(金一智)가 태어났다는 전설의 숲이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원래 시림(始林)이라고 하던 것을 일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鶴林)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계림은 신라초기부터 2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곳으로 신비로움과 신성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첨성대 (국보 제31호)

선덕여왕(신라 제27대왕, 재위 632~647)때 축조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써 높이 9.17m, 아래지름 5.17m의 원통형 석조물이다. 30cm 높이의 돌 361개로 꼭대기 정자석(井字石)까지 28단을 쌓아올렸는데, 둘 하나하나에 고도의 상장적인 의미가 담겨있으며, 각 석단을 이루는 원형의 지름이 위층으로 갈수록 줄어드면서 유려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사람이나 첨성대를 오르내리며 별을 관측하였다는 신국유사의 기록이 현존 실물과 일치한다.

대릉원

신라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은 미추왕릉, 천마총, 그리고 황남대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라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관, 천마도(天馬圖, 국보 제207호)와 함께 유리잔, 각종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 출토된 문화재의 보고(寶庫)이다.

하이코 기준 : 각 5km 이내, 차량이동 5분 이내

6시간 코스 | 동해권

경주풍력발전소 김은사지 삼층석탑 문무대왕릉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경주풍력발전소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는 토함산 지역에 경주풍력발전소가 있다. 바람개비 같은 총 7기의 풍력 발전기와 들판에 보여주는 이름대로 전망이 이국적인 분위기의 자아내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다.

하이코 기준 : 20km, 차량이동 30분

김은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112호)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아버지인 문무왕(신라 제30대 왕, 재위 661~681)의 뜻을秉承하여 완성한 김은사(感恩寺)는 와군을 진압하기 위해 건립한 사찰이다. 현재는 절터와 두 개의 삼층석탑이 남아있는데, 이 두 개의 석탑을 김은사지 동·서 삼층 석탑으로 부른다. 김은사지 석탑은 13.4m 높이에 기단 2층, 몸체 3층의 삼층석탑으로 양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를 이루며 중앙에서도 뛰어난 비례미를 보여준다.

문무대왕릉

봉길이 앞바다에 육지로부터 200m쯤 떨어진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 제 30대 문무왕(661~681)의 수중릉이다. 둘째 200m의 바위섬에 동서와 남북으로 십자 모양의 물길을 깎은 다음, 가운데 작은 물길에 힐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 깊이 3.6m, 폭 2.85m, 두께 0.9m의 큰돌을 물속 2m 깊이에 놓아 그 위에 유골을 모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단, 화장을 해서 재를 뿐였느냐 유골을 직접 모셔 놓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큰 돌을 대왕암이라 하며 사적 제158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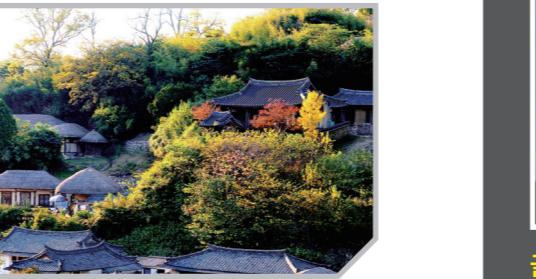
경주 동해의 해저에서 읍천해에 이르는 1.7 km의 해안길인 파도소리길은 바다를 감상하며 산책과 조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읍천해에는 천연기념물 536호로 지정된 경주암반 주상절리군이 있는데, 용암이 분출하여 빠르게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주상절리가 수직 형태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곳의 주상절리는 수평 또는 부채꼴 등 독특한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양동마을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불국사는 불국토의 이상을 사비세계(인간세계)에 화현시킨 불교 신앙의 완성체라 할 수 있어, 국내외 많은 불교행자들이 수행처로 찾고 심어하는 곳이다. 불국사삼층석탑, 다보탑 등 아름다운 불교예술을 감상하며 특별한 한글의 대표적 죽족·양반마을로서 우리나라의 기록, 배산임수의 입지유형, 조선시대 유교 예법에 입각한 기운의 구상 등 전통 건축 양식 및 생활 양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공간임을 인정받아 2010년 8월 인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일 코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구역 양동마을



석굴암 (국보 제24호)

신라 경덕왕 10년(751년)에 재상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창건하기 시작하여 774년 해공왕 10년 때 완공한 석굴사원. 화강암의 자연석을 더듬어 인공적으로 축조되었으며, 그 조망경관에 있어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충체적으로 실현된 불교미술의 백미(白眉)이자 신라 전성기 최고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석굴암은 1995년 불국사와 함께 한국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불국사

불국사는 석굴암과 같은 시기인 신라 경덕왕 10년(751년)에 재상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 짓기 시작하여 해공왕 10년(774년)에 완성하였다. 신라인의 뛰어난 예술성과 석축기술을 통하여 불교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인 불국사는 특별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1995년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경주역사유적구역

경주 내 5개 구역, 즉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가 2000년 11월 경주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유적의 밀집도,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총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

불국사 템플스테이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불국사는 불국토의 이상을 사비세계(인간세계)에 화현시킨 불교 신앙의 완성체라 할 수 있어, 국내외 많은 불교행자들이 수행처로 찾고 심어하는 곳이다. 불국사삼층석탑, 다보탑 등 아름다운 불교예술을 감상하며 특별한 한글의 대표적 죽족·양반마을로서 우리나라의 기록, 배산임수의 입지유형, 조선시대 유교 예법에 입각한 기운의 구상 등 전통 건축 양식 및 생활 양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공간임을 인정받아 2010년 8월 인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템플스테이 (Temple Stay)

템플스테이(Temple Stay: 신사체험)는 한국 전통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생활, 한국 불교의 전통문화 및 수행정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선, 밤운공양, 예불, 108배, 연꽃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각 사찰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템플스테이는 비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만나고, 타인과의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자연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골굴사 템플스테이

한국 유일의 석굴사원인 골굴사는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의 시초다. 불교수행법의 한 종류이자 전통 무예인 석무도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골굴사를 찾으면서 1992년부터 자연스럽게 사찰체험프로그램, 즉 템플스테이가 시작되었다. 골굴사의 템플스테이는 석무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며, 보물 581호인 마애아미타불(미애여래좌상)을 친환경하고 여러 석굴방법을 순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프로그램: 국궁, 선요가, 차담, 석무도 수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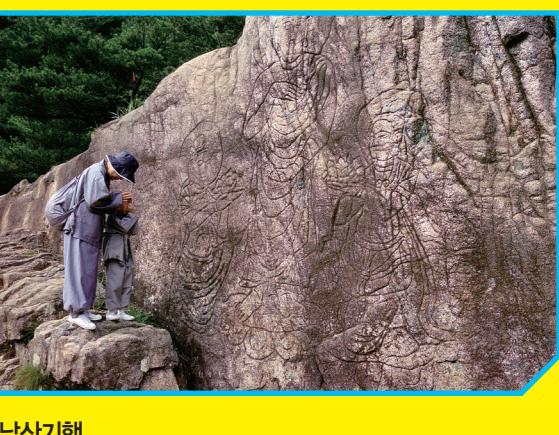
하이코 기준 : 20km, 차량이동 30분



불국사 템플스테이

불국사는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다. 불국사는 불국토의 이상을 사비세계(인간세계)에 화현시킨 불교 신앙의 완성체라 할 수 있어, 국내외 많은 불교행자들이 수행처로 찾고 심어하는 곳이다. 불국사삼층석탑, 다보탑 등 아름다운 불교예술을 감상하며 특별한 한글의 대표적 죽족·양반마을로서 우리나라의 기록, 배산임수의 입지유형, 조선시대 유교 예법에 입각한 기운의 구상 등 전통 건축 양식 및 생활 양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공간임을 인정받아 2010년 8월 인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팀빌딩 (Team Building)



경주남산기행

아와느천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산에는 월릉, 산성, 불상, 불탑 등 700여점의 신라유적이 산재해 있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주간에 진행되는 경주남산유적답사와 야간에 진행되는 경주 남산빛기행 중 선택할 수 있다.

- 주 관: 경주남산단

- 문 의: 054-777-7142

- 홈페이지: www.kjnamsan.org



보문호반 달빛걷기

보문호 가정자리를 따라 정비된 산책로, 이른바 보문호반길을 걸으며 경주 야경의 경취를 만끽할 수 있는 보문호반 달빛걷기프로그램은 가족, 동료와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야간투어프로그램이다. 보문수상공연장-호반광장-물涓을교 등으로 이어지는 약7km의 구간을 이용하는 동안 운동을 관람하거나, 각종 미션을 수행하기도 한다.

- 주 관: 경상북도관광공사

- 문 의: 054-740-7330

본 출보를 내 수록된 정보는 관련 관광지 및 기관(단체) 등의 내부 사정으로
사전 공지되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수정 : 2016년 12월